



## [토론] 0과 1로 인간의 감정을 코칭 할 수 있을까? 앱 활용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통한 감정 코칭에 대한 토론

---

저자 (Authors)	문대영
출처 (Source)	<a href="#">한국실과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a> , 2016.8, 93-95(3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실과교육학회</a> The Korean Association of Practical Arts education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762776">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762776</a>
APA Style	문대영 (2016). [토론] 0과 1로 인간의 감정을 코칭 할 수 있을까?. 한국실과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93-95
이용정보 (Accessed)	가천대학교 203.249.***.201 2019/09/29 19:20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앱 활용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통한 감정 코칭」에 대한 토론 0과 1로 인간의 감정을 코칭 할 수 있을까?

문 대 영 (부산교육대학교)

### [1] ON

0과 1로 창조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교육으로 가장 원초적 아날로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인간의 감정을 코칭 할 수 있다니, 이야말로 아날로그 감성과 디지털 감성의 충돌이 아닌가? 과연 가능할까? 물론, 학회 기조 강연을 해주실 유명만 교수님의 모든 것도 '010000'이라는 여섯 개의 디지털 신호로 축약 표현할 수 있으니 불가능한 일은 아닐 듯하다. 토론자에게는 생소한 '감정 코칭'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궁금증을 해결해봐야겠다.

#### 1. 코칭

코칭의 의미를 백과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코칭의 연관검색어는 라이프 코칭, 셀프 코칭, 경영 코칭, 취업 코칭, 진로 코칭, 부모 코칭, 학습 코칭, 독서 코칭, 진로 코칭 등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과 교육에서 코칭의 의미를 확인하고 적용하려는 접근은 도적적인 시도였다고 생각된다. 초등학교 실과 교육의 다양한 장면에서 다양한 코칭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 같다. 실과 교육의 본질과 코칭의 의미에는 뭔가 공통점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자신감과 의욕을 고취시키고, 실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의미한다. ‘코칭(coaching)’이라는 용어는 커다란 사륜마차를 가리키는 ‘코치(coach)’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사람을 목적지까지 운반한다는 의미에서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의미로 변화하였다. (중략)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지표를 제시해주는 멘토링(mentoring)이나 지식을 전달해주는 티칭(teaching), 상담과 조언 역할을 하는 카운슬링(counseling)과 달리 코칭은 계약관계로 맺어지고, 개인의 변화와 발전을 지원하는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십에 중점을 둔다. 성취를 이루려는 개인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동기부여와 믿음을 심어주며,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

## 2. 감정 코칭

좁은 의미의 감정 코칭은 부모가 자녀의 감정, 특히 부정적 감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코치 역할을 하는 부모 양육 태도를 의미하는 가트맨(John Gottman)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넓은 의미의 감정 코칭은 학생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정서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자는 기노트(Haim G. Ginott)의 주장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발표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발표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학생들, 이러한 불안한 감정들이 누적되면서 자기효능감 상실로 이어지는 장면들’을 눈여겨보았을 것이다. 불안에 흔들리는 눈동자, 움추러든 어깨, 때론 짝 다문 입, 떨리는 목소리가 안쓰러웠을 것이다. 학생의 감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기노트의 정신을 수용하여 이 연구에서 감정 코칭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 3. 감정 코칭과 자기 효능감

발표자들은 학생들의 발표 경험 부족과 실패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기 효능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앱 활용 프레젠테이션 교육 전략을 마련하였다. 프레젠테이션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안한 감정을 제대로 된 프레젠테이션 교육으로 극복하겠다는 ‘정공법’이다. 제대로 된 프레젠테이션 교육의 핵심 전략을 1) 자신이 수행에서 직접적으로 얻는 성취 경험, 2) 다른 사람의 성공적인 수행을 관찰하며 갖게 되는 대리 경험, 3) 언어로 이루어지는 제안, 효과적인 정보 전달 등의 언어적 설득, 4)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스트레스 등의 정서적 상태를 다루는 정서적 각성에서 찾았다. 자기 효능감 형성의 저해 요소를 극복하며, 이들 핵심 전략을 반복적으로 경험

하도록 하였다.

자기 효능감 향상 전략만으로 감정 코칭이 충분히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발표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라 할 수 있는 <표 IV-1>의 ‘프로그램 구성 기본 방향’은 타당하다. 다만, 각각의 전략들이 어떻게 설계되고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특히, ‘정서적 각성’ 전략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궁금하다.

## [0] OFF

‘0과 1로 이루어진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프레젠테이션’은 결코 인간의 감정을 코칭 할 수 없다. 다만, ‘0과 1로 이루어진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교육’은 감정 코칭을 가능하게 한다. 그 어려운 걸 해 내는 것은 결국 ‘교육’이다.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었던 프레젠테이션 활동이 적절한 교육 전략과 만나 구성될 때,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감정 코칭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멋지지 않은가? 아날로그 감성과 디지털 감성의 교차점에서 ‘교육’의 기능이 더 중요해졌다. 우리의 책무가 더욱 커진 것이다.